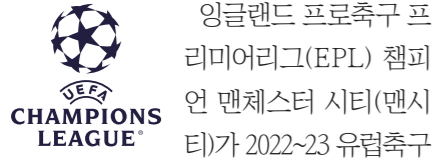


만수르의 꿈... 트레블 대업 이룬 맨시티

유럽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 1-0 꺾고 첫 우승 펍 감독, FC바르셀로나에 이어 두 번째 트레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2022-23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하며 구단 사상 첫 '트레블'의 대업을 이뤄냈다. 펍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11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후반 23분 터지던 로드리의 결승골을 앞세워 인터밀란(이탈리아)을 1-0으로 꺾고 구단 사상 첫 UCL 우승을 이뤄냈다.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족인 만수르가 인수한 뒤 강호로 떠오르며 올 시즌까지 EPL에서 7차례나 우승했지만 UCL 정상에는 번번이 실패하던 맨시티는 영원하던 '빅이거(UCL 우승컵의 애칭)'를 드디어 들어 올렸다.

2016년 맨시티 지휘봉을 잡은 과르디올라 감독은 7년 만에 고대하던 UCL 우승을 달성했다.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 감독이던 2008-09시즌 트레블에 이어 두 번째 트레블을 맞보는 영광을 누렸다. 2010-11시즌 UCL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앞서 맨시티를 이끌고 결승에서 1차례, 준결승에서 1차례, 8강에서 3차례 아깝게

탈락했던 'UCL 잔혹사'를 끝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은 데뷔 시즌 팀에 빅이거를 선사했다. EPL에서 무려 36골을 퍼부으며 득점왕을 차지한 홀란은 UCL에서도 12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홀란은 공식전 52골로 환상적인 EPL 데뷔 시즌을 마무리했다.

2009-10시즌 이후 13년 만에 UCL 결승 무대에 오른 인터밀란은 4번째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맨시티 첫 우승 드라마의 조연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맨시티는 공 점유율에서는 58% 대 42%로 앞섰으나 슈팅 횟수에서는 7-14로 뒤졌다. 치열했던 승부는 후반 23분 같았다. 베르나르두 실바의 짧은 패스가 상대 수비에 맞고 페널티아크 쪽으로 흐르자 문전으로 달려들던 로드리가 오른발 눈스톱 슈팅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을 찔러 결승골을 뽑았다.

패배 위기에 몰린 인터밀란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맨시티 수비진과 GK 에데르송의 단단한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특히 에데르송은 후반 43분과 경기 종료 직전 인터밀란의 결정적 헤더를 두 차례나 막아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맨시티 주장 일카이 칸도안(가운데)이 2022-23 UCL 시상식에서 빅이거를 치켜 올리며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김효주, 올 시즌 첫 우승 노린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8위인 김효주(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피릿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 약 22억7500만 원)에서 시즌 첫 우승 기회를 잡았다.

김효주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겔러웨이의 시뷰 베이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때렸다. 중간합계 10언더파 132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선두 다니 홀름크비스트(스웨덴)에게 1타 뒤진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통산 5번째 우승을 거둔 김효주는 디오 임플란트 LA오픈 공동 3위가 최고 성적일 뿐 우승 물꼬를 트지 못했다. 4일 끝난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오픈에



서 장염 후유증에도 공동 3위를 차지하며 감각을 끌어 올린 김효주는 이날 버디 8개를 쓸어 담았다.

이날 김효주는 18개 홀을 불과 25번 퍼트로 마칠 만큼 퍼트 감각이 돋보였다. 선두 홀름크비스트는 4타를 줄이며 이를 연속 선두를 올라 생애 첫 우승 기대를 부풀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김효주뿐이 아니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 챔피언 애슐리 부하이(남아공)가 3타차 3위에 포진했고 세계랭킹 6위 아타야 티피쿤(태국)도 공동 4위로 따라붙어 역전을 노린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시비옹테크, 최연소 메이저 4승 달성

프랑스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2연패

여자 테니스 세계 1위인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을 제패하며 한동안 특별한 감자가 없었던 여자 테니스를 평정하고 있다. 시비옹테크는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카롤리나 무호바(43위체코)를 2-1(6-2, 5-7, 6-4)로 제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프랑스오픈 정상을 지킨 시비옹테크는 개인 통산 네 번째 메이저 단식 트로피를 수신했다.

2001년생 시비옹테크는 이로써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이후 21년 만에 최연소로

메이저 4승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시비옹테크는 2020년과 2022년, 2023년 프랑스오픈과 지난해 US오픈에서 우승했다. 키 176cm인 시비옹테크는 체격이나 파워를 앞세우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서브 에이스를 7경기를 치르는 동안 8개를 기록, 전체 12위에 올랐다.

똑같이 7경기를 치른 무호바가 18개를 터뜨렸고 엘

레나 리바키나(4위-카자흐스탄)와 같은 선수는 2경기에 14개를 쫓는 것과 비교하면 시비옹테크의 에이스 수가 비교된다.

시비옹테크는 1세트 6-2로 따낸 뒤 2세트도 3-0까지 앞서다가 5-7로 뒤집힌 시비옹테크는 3세트 3-3에서 먼저 브레이크를 당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내리 3게임을 따내며 재역전에 성공했다. 메이저 대회 결승 4전 전승, 일반 투어 대회 포함 결

승 전적 14승 4패 등 큰 경기에 더욱 집중력을 발휘한 결과다.

2007년 쥐스틴 에빙(벨기에) 이후 16년 만에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시비옹테크는 또 1992년 셀레스 이후 31년 만에 최연소로 이 대회 여자 단식 2연패를 이룬 선수가 됐다.

이날 모자에 조국 폴란드의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의 국기 색깔로 된 리본을 착용하고 여자 선수로는 드물게 벤치에서 상의를 갈아입는 등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거침없는 모습은 팬들에게 그의 매력을 어필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다만 다가오는 잔디코트 대회 Wimbledon은 지금까지 시비옹테크가 2021년 16강이 최고 성적일 정도로 풀어야 할 숙제인 대회다. 지금까지 투어 대회 14차례 우승은 하드 코트와 클레이 코트에서 7번씩 달성했고, 잔디코트에서는 결승에 오른 적이 없다. 김영준 기자 mjkim@skyedaily.com



시비옹테크. AFP-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